

제목 : 레위기 8. 제사장 위임식

본문 : 레위기 8장 1~9 / 참고 - 출애굽기 29:1~37 /

(레 8:9)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 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 -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 1~7장을 통하여 5대제사와 관련된 내용과 규례를 제사드리는 사람과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8장~10장은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제사장은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서 회중의 입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돕고 안내하면서 때로는 회중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관련되어 레위기는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제사장을 세우는지 그리고 그렇게 세움받은 제사장이 처음 집행한 제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8~10장에서 그리고 21~22장에서는 그런 제사장들이 어떤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 #. 제사장과 관련되어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 나름대로 전문직이라 일반 사람들 보다는 소위 목회를 전담하는 이들에게나 관련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정신은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런 일을 무슨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비밀스런 예식 절차가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함께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왜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 1)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미 출애굽기 2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을 이제 레위기 8장에서는 실제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의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이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2)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위임받을 당사자들과 위임식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한 다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중을 회막 문앞으로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분명 위임식 절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 3) 제사장 위임식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두 위임식의 절차를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위임식에서 관유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 제사장 위임식의 결론 -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해나라.

2. 위임식과 관련되어 제사장의 복장과 기름부음 의례들은 거룩한 직분을 위하여서는 또한 그에 걸맞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막의 제도와 함께 제사장과 관련된 모든 규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룩의 현시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위임식은 또한 속죄제를 필두로 해서 제사장 위임을 위한 제사들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모든 과정의 마지막은 제사(예배)입니다.

#.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번제-화목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부정결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복원시키고, 번제는 복원된 관계 속에서 감사의 제사로 드러지고 이모두를 마무리 하는 화목제는 그 감사를 인간과 함께 풍성히 나누기 위한 잔치의 제사로 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1) 위임식을 위한 속죄제는 어떻게 드러지고 있습니까? 제사의 진행 절차는 대략 출 29장이 지시한 바와 같지만 레위기 4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는 일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그다음 위임식을 위한 번제가 이어집니다. 번제 역시 이미 소개된 레위기 1장의 번제에 관한 지시대로 실행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제사의 진행에서 이미 명시된 내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3) 속죄제와 번제에 이어 중요한 위임식 숫양의 제사가 드러집니다. 이때 준비된 숫양 두 마리 중 남은 한 마리를 가져와 그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부위를 바친 후 레 7:34의 화목제 규정대로 남은 고기를 처분한다는 점에서 숫양을 일종의 특수한 화목제로 바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이미 제시된 규정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위임식 숫양의 제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떠했습니까?

4) 위임식의 제사와 함께 전체적으로 제시되었던 주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이 위임식은 얼마동안 행해졌습니까? 이기간 동안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 위임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된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위임식 전체에서 골고루 그리고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적용을 위한 기도 제목 :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직분의 중요함과 역할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거룩한 직분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받은 직분과 사명 거룩하고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소서.

## 성경에 입각한 대제사장의 예복 착용모습

